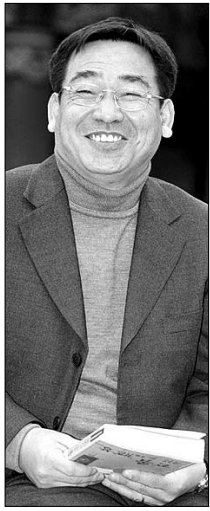


### 아하! 불교가 이런거구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입문서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기초교리와 수행법,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개론서를 써 보자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개론서나 입문서는 초심자들이 ‘불교’라는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뗏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뗏목에 올라타는 것조차 힘들거나 그 목적지가 울바르지 못하다면 불교의 본래 모습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 기초교리·수행법·역사·문화 등 입체적으로 불교 조망한 입문서

아닌, 생활 속의 체험과 일반인들이 쓰는 쉬운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불교의 기본 사상과 역사적 흐름에 이어 입(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천도재와 방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오늘의 언어, 오늘의 삶에 입각해 설득력 있는 교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것을 독자와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아하!’ 하는 느낌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업, 연기, 중도, 공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그것을 다시 읽고 사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만도 2년이 걸렸다. 단순한 교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교리가 어떻게 수행과 수행, 문화와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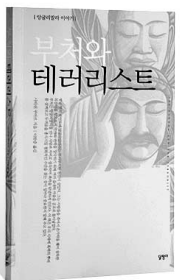
“오늘날의 사회문제에 대한 답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불교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입문서란 해당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불교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다면 비로소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닐까?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지음 | 동승출 | 9천원

## 폭력의 뿌리 파헤쳐보니...



부처와 테러리스트  
사티쉬 쿠마르 지음 | 이한중 옮김  
달팽이 | 6천5백원

“부처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성(佛性)이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여러 번 해지러 한 데바닷다나 999명의 선량한 사람을 죽인 앙굴리말라조차 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음’을 은연으로 보여주셨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에게 총을 겨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성전(聖戰)’이란 말로 미화한다. <부처와 테러리스트>는 앙굴리말라라는 난폭한 살인마의 교화과정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폭력이 아닌 자비와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시대나 경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하지만, 앙굴리말라의 일화는 잔혹한 살인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자로 거듭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매고 다니는 앙굴리말라는 교활한 살인마이자 살아있는 ‘악’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두려움과 무지, 번뇌를 깨우쳐주고 제자로 받아들인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그대가 귀족과 부자와 권력자의 손에 고통 받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억압은 억압에 의해 끝날 수 없다. 불이 낫는 데 불을 더 붙여 쫓는다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는 자비로, 중

오는 사랑으로, 불의는 용서로 극복해야 한다. 증오와 폭력을 멈추어라. 그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지은이는 이 일화를 통해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내재된 폭력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지은이는 폭력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앙굴리말라를 감화시킨 부처님이나 교화된 앙굴리말라를 진심으로 믿고 살려주는 사비티 왕국의 파세나나 왕,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를 용서해 주는 수자타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앙굴리말라 등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증오와 폭력의 길을 택한 앙굴리말라를 교화시킨 것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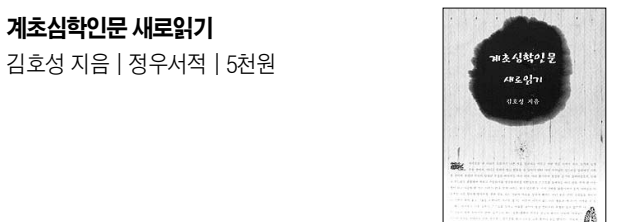
### 악의 화신 앙굴리말라 일화 통해 내면의 두려움 극복하는 길 제시

<지그재그 선>의 저자인 앨런 헌트 바디너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유럽과 호주, 인도에는 앙굴리말라의 일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는 내면의 두려움을 직시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책을 지은 사티쉬 쿠마르는 1936년 인도 라자스탄에서 태어나 9살의 나이로 자이나교 승려가 되었으나 18살이 되던 해 승려의 길 대신 불기독교인들을 위한 토지개혁운동에 참가한다. 73년부터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으며 91년 세계적인 생태교육기관인 슈마허 칼리지를 설립하는데 참여하는 등 생태적이고 영적인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재가자 위한 ‘계초심학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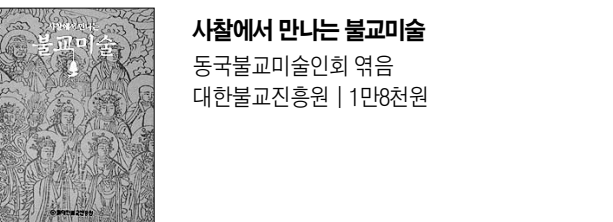
계초심학인문 새로읽기  
김호성 지음 | 정우서적 | 5천원

“출가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책”, 바로 <초발심자경문>이다. 보조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아운 스님의 <자경문>으로 이뤄져 있는 <초발심자경문>은 우리나라 행자 교육원의 필수과목이다. 이 세 권의 책에는 첫 마음을 내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일깨우고 경계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계초심학인문>을 <초발심자경문>에서 독립된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님을 주된 독자로 삼아 쓰여진 <발심수행장>과 <자경문>과는 달리 <계초심학인문>은 출가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들에게도 읽혀져야 할 기본적인 교과서라는 것이 이 이유다.

<계초심학인문 새로읽기>는 보조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펴고자 <계초심학인문> 100회 강의를 발원한 지은이가 지난 1993년 발간한 책을 다시 펴낸 것이다. 보조선의 윤리적 인성이나 정혜결사에 대한 논문 2편을 삭제한 대신 원문에 대한 해설과 강의를 더욱 보강했다. 부록으로 원문 현토와 우리말 <계초심학인문>을 실었다.

### 알고보면 심오한 불교미술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대한불교진흥원 |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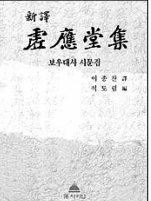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용어’의 생경함일 것이다. 전각의 종류가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원통전 등으로 가지가지만 그 안에 모셔진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미륵불 등의 불상은 일반인들이 생경새만으로는 이름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은 흔히 어렵게만 느끼는 불교미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재순)가 펴낸 책이다. 1998년 발간된 초판의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사진과 도판을 덧붙였다. 27명의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사찰의 의미와 불상, 불화, 전각 보살상, 누각, 탑 등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불교미술을 설명하고 있다.

박현수 前 회장은 “불교미술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장르로 우리 전통미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책에서는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는 불교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풍부한 사진과 그림이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울 커리루 구성과 책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흠이다.

### 새로운 책

■ <신역 허응당집>(이종찬 옮김, 도립 스님 펴냄, 불사리탑, 3만7천원)=조선불교를 중흥시킨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스님의 시문집. 태극 스님이 보우 스님의 시, 법어 등을 모은 <허응당집>을 이종찬 교수가 우리말로 옮기고 도립 스님이 책으로 엮었다. 시와 편지 등을 통해 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아이고 부처님>(학승 스님 지음, 바보새, 1만원)=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출가를 감행한 학승 스님의 예세 이집. 수구암에서 정진 중인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들었던 예화와 생활 속의 수행이야기를 담고 있다. 효림 스님은 “이 책에는 학승 스님이 활공사 상가이자 금강행자로서 출가를 꿈꾸며 살아온 수행자로서의 이야기가 두루 들어있다”고 평했다.



■ <틱낯의 상상>(탁한 지음, 진우기 옮김, 미토스, 8천9백원)=‘행복한 수행 공동체’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탁한 스님이 프랑스 플립랄리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수행법을 정리, 소개한다. ‘소외의 치유’, ‘분쟁을 해결하는 일곱 가지 방법’, ‘가족의 마음을 살피우기’ 등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행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오체부처	한 경 해	반디미디어
3	임보리행론	산티 데바	하얀연꽃
4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야판
5	영가전도	우룡 스님	효림
6	붓다 그 삶과 사상	해명 혜명	무우수
7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효림
8	왜 사는가	무량 스님	효림원
9	한국의 선사들	김신곤 외	우리출판사
10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교재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닫게 해주려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제현 선사(전각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동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입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명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산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범회, 사십구재보현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사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범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2005년 음향 임대 사업 시행
- 지장사업부 - 대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전북 정읍 용천사 지정 다비장 운영

문의: 050-5244-0108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명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시요.

- 모집구분: 지점장 - 남·영, 여·영, 사원 - 남·영, 여·영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 "범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주 야단법석은 불기 2549(2005년)부터 음향시스템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주 야단법석의 음향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십시오.

- 좋은 제품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 목돈보다는 월 임대료로...  
불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범당장염은 잘하고도 싼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범회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생 관리를 애드립니다.  
설치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A/S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야단법석은 책임지고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 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협 601175-52-016521

주요수룩내용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오 땀이 미쳐가고 있어오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사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대와 세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공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자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 띠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 날짜로 손(손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